

[긴급 기자회견 취재 요청서]

“기후불량국가 자인하는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안을 규탄한다!”

1.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 모두, 우리나라가 2020년에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증대로 온실가스 주요배출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감축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국가가 보여줘야 할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3. 대한민국이 의무감축국가도 아니면서, 선제적으로 발표했던 2020년 감축목표는 소극적이라는 국내 환경단체의 비난에도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스스로 전 세계에 공표했던 2020 감축목표 자체를 부인하는 정부안은 국제사회의 도의적 책임에 대한 비난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COP20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감축목표 후퇴금지 원칙’도 무시하는 안으로,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깡패국가, 불량국가로 전락시키는 부끄럽기 그지없는 계획입니다.
4. 이에 에너지시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열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언론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5년 6월 3일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기자회견 순서 :
 - 여는 말씀
 - 온실가스감축 국제동향에 비춰본 정부감축목표의 문제점
 - 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 과정에서 본 절차적 문제점
 - 시민사회가 바라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량에 비춰본 정부 계획의 문제점
 - 기자회견문 낭독

2015년 6월 3일
에너지시민회의/한국환경회의

문의) 녹색연합 윤기돈 활동가 : kdyoon@greenkorea.org, 010-8765-7276